

OPEC·非OPEC관계와 전망

이 글은 OPEC사무국의 Al Fatti氏가 日本 中東經濟研究院주최의 4차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옮긴 것이다.<편집자註>

'90년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80년대 石油시장에서 목격된 상황들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세계의 石油수요는 '80년과 '85년 사이에 감소했고 그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非OPEC의 생산은 계속 증가해 왔다. 또 유가는 '80년대 초에는 급등했었으나, 그 이후 '82년부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86년에는 급격한 유가폭락이 있었다. 그 이후는 격심한 유가변동을 수반한 부분적 가격회복이 석유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80년대 상황의 부정적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거론된 것이 산유국과 소비국의 협력, OPEC·非OPEC산유국의 협력이었다. 이 글에서는 OPEC 및 非OPEC 석유수출국시비의 역사적인 관계변천을 다루고 미래전망과 이러한 협력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1. 배경

石油시장 안정을 위한 OPEC·非OPEC 산유국 사이의 협력개념은 '80년대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PEC의 기원은 1960년 9월 OPEC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OPEC 정강 2항이 명시하는 OPEC의 목적은 ① 산유국의 이익과 안정된 수익 확보 ② 소비국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상적인 석유공급, ③ 석유산업에 대한 적절한 이윤 확보이다.

'60년대 및 '70년초 OPEC는 본질적으로 회원국 정비 및 그때까지 석유산업을 지배해왔던 다국적기업과의 이견해소 및 권한다툼에 주로 관여하였었다.

그러나, '73년 1차 석유위기후, OPEC는 회원국의 높은 석유감소율과 경제성장 촉진 및 석유시장 안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소비국과의 협의를 공식화하려는 시도에 몰두하였다.

'80년대 특히 후반에 「非OPEC 산유국」이라는 용어와 시장안정을 위한 OPEC협력개념이 점차 전면에 등장했다.

1960~1980년중 OPEC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 즉 탐사계약형태의 변화이든, 국제석유사와의 관계이든, 이것이 세계적 자원개발에 공헌하였고 유한자원에서 석유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非OPEC 산유국들도 똑같은 이익을 얻었다.

OPEC 석유매장량은 계속 증가하여 '73년 4,209억배럴에서 '88년 7,628억배럴로 점유율은 72.5%에서 76.9%로 증가하였다.

OPEC의 이러한 매장량 대규모증대는 非OPEC산유국들의 완만한 증대와 대조를 이룬다. 非OPEC산유국들은 '73년 1,596억배럴에서 '88년 228.7억배럴로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공산권 및 非OPEC 개도국들의 경우는 높은

세계석유매장량추이

(단위 : 10억배럴)

	1973	%	1979	%	1985	%	1988	%
OECD	64.2	11.1	56.0	8.9	54.2	7.2	50.9	5.1
공산권	65.3	11.2	82.1	13.0	82.8	10.9	83.6	8.4
非OEPEC개도국	30.1	5.2	57.3	9.0	81.7	10.8	94.2	9.5
非OEPEC 計	159.6	27.5	195.4	30.9	218.7	28.9	228.7	23.0
OPEC	420.9	72.5	436.2	69.1	537.0	71.1	762.8	76.9
세계 計	580.5	100.0	631.6	100.0	755.7	100.0	991.5	100.0

세계석유생산추이

(단위 : 백만B/D)

	1973	%	1979	%	1985	%	1988	%
OECD	11.7	21.1	12.7	20.2	14.9	27.9	14.0	24.2
공산권	9.6	17.3	14.2	22.6	14.7	27.6	15.5	26.8
非OEPEC개도국	3.2	5.7	5.0	8.0	8.2	15.4	8.7	15.0
非OEPEC 計	24.5	44.1	31.9	50.8	37.8	70.9	38.3	66.1
OPEC	31.0	55.9	30.9	49.2	15.4	29.0	19.6	33.9
세계 計	55.5	100.0	62.8	100.0	53.3	100.0	57.9	100.0

석유가채년수

(단위 : 年)

	1973	1979	1985	1988
OECD	15.0	12.1	10.0	9.9
공산권	18.7	15.9	15.4	14.8
非OEPEC개도국	26.0	31.4	27.1	29.4
非OEPEC 計	17.9	16.8	15.8	16.3
OPEC	37.2	38.6	95.2	106.2
세계 計	28.7	27.6	38.8	46.8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이 기간중 실제 생산현황은 매장량증가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OPEC산유량은 '73~'79년중에는 3,100만b/d水準에서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 그 이후 급격히 하락 '85년에는 1,540만b/d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특히 '80년대 초반 석유수요감소에 의해 야기되었다.

반면, 非OPEC산유량은 '73년 2,405만b/d에서 '79년 3,190만b/d로 '85년에 3,780만b/d로 계속 증가해왔다.

非OPEC산유량의 증대는 공산권(510만b/d), 非

OPEC 개도국(500만b/d), OECD(320만b/d)였다.

이러한 非OPEC생산현황은 OECD 및 共產圈의 가채비율감소 및 非OPEC개도국의 가채년수가 소폭증가한 반면, OPEC는 '73년 가채년수가 37.2년에서 '85년 95.2년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는 먼저 非OPEC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석유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비국의 기본정책은 對OPEC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인 단기정책으로 이로 인한 장기적 의존증대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OPEC는 석유시장안정이 점차 어렵게 되었고 유가가 하락하고 석유수익도 '80년 287억달러에서 '85년 131억달러로 급감하였다.

석유수익감소는 계속 OPEC산유량을 감소시키고 '82년 4월이래 회원국 생산쿼타 제도등으로 유가유지노력을 했으나 석유수익감소는 막지 못했다.

이 기간중 非OPEC산유국은 OPEC가 설정한 가격 및 생산통제제도를 이용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 이를 非OPEC산유국들은 OPEC와 비교하여 불패 가격할인을 통해 판매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OPEC는 석유자원보존 및 자원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채택하긴 했지만, 석유시장점유율상실은 궁극적으로 가격구조를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과거 OPEC의 광범위한 생산능력은 이러한 가격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85년 이러한 OPEC 생산이 기타 산유국의 협력부족으로 줄어들자, 시장은 '86년 유가폭락을 겪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가격변동을 겪어왔다.

OPEC이 88년 말까지 400만b/d를 회복해도 非OPEC 생산은 전보다 낮은 증가율이긴해도 계속 증가했다.

특히 美國으로부터 OECD생산감소는 '85년 이후 개도국·공산권 생산증가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았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非OPEC산유국들은 여전히 생산극대화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개발투자감퇴는 생산을 전예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OPEC가격결정의 최근 경쟁요소는 非OPEC개발유인을 감소시켰다.

2. '86년前的 관계

OPEC·非OPEC 산유국사이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력노력도 '70년대말 이전에는 없었다. 세계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간주되었고 제1차 석유위기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재개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상, '80년대중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예상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산유국들을

수용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굳이 생산정책을 상호조정하거나, 생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산유국들 사이의 최초의 협력시도는 '78년 末에 만들어졌다. Hernandez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 런던방문중 OPEC·非OPEC산유국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었다.

이 제안은 영국에너지썬이 수락했으나, 非OPEC 산유국들 사이의 충분한 협의부족으로 이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며, '79년 2월 이 제안은 사장되고 말았다.

선진국의 구조적 변화와 에너지보존, 대체노력의 성공으로 81년부터 석유수요가 감퇴하기 시작하자, 시장안정달성을 위해서는 非OPEC증산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 많은 OPEC관사들은 非OPEC의 노력요청(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을 주장하였다.

'83년 3월 런던에서 열린 67차 OPEC총회는 1,750만b/d의 산유쿼타를 설정하였다. 또 많은 석유장관들은 英國에너지장관과 회동, 협력의 필요와 OPEC 가격에서 할인판매하지 않을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英國이 OPEC의 곤경에 동정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공식적인 협력약속은 없었다.

'84년 7월 빈에서 열린 OPEC총회의 공동성명은 공식적으로 최초로 非OPEC산유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총회는 非OPEC산유국의 증산이 최근 시장상황전개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석유시장 안정 및 유가구조보호의 책임을 공동 분담할 OPEC·非OPEC 산유국의 협력증진 방안 발견을 위해 이러한 국가들과의 접촉을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OPEC는 멕시코의 지지를 얻어 멕시코는 수출을 150만b/d로 제한하고 유가를 가능한한 OPEC 산유국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84년 7월 야마니 사우디 석유장관의 런던방문결과로서, 英國 국영석유사(BNOC)는 北海유전에서 활동중인 石油社에 가격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촉구하는데 합의하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노력정신은 '84년 10월 Statoil社가 BNOC을 뒤따라 원물가격과 연계된 새로운 가격방식을 선언했던 후 오래가지 못했다.

또 이것은 곧이어 열린 OPEC회의에서 생산상한을

1,600만b/d로 하고, 새로운 쿼터배분 및 N/C가격을 배럴당 29달러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非OPEC의 증산 및 할인판매정책에 직면 가격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멕시코는 또다시 수출을 140만b/d로 감축, 이집트도 수출 3만b/d 감축등으로 對OPEC 협력 움직임을 보였다. 또 이들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OPEC 총회의 읍저버로써 초청되었다.

'85년말까지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이 기간중 OPEC·非OPEC 사이에 많은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접촉은 확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소련등도 포함되었다.

'84. 10~'85. 12월 사이의 OPEC총회 및 기타 조위원 회회의에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 非OPEC 읍저버 국가들이 대거 참석했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낫설지 않다.

이 기간중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산유량은 유가영향을 미칠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OPEC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3. '86년이후 관계

'86년의 유가폭락은 모든 산유국, 특히 非OPEC산유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OPEC는 적어도 이같은 충격의 지속성을 경고하였다. 非OPEC산유국에 대한 유가폭락의 영향은 그들이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감소를 생산 증대로써 보전하여 결국 최대 생산능력으로 가동함으로써 더욱 참담한 실정이었다. 생산량의 증대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어려웠다.

유가하락의 결과는 산유국간의 협력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안수립을 구체화 시키게 하였다. Arturo Hernandez Grisanti OPEC 의장은 石油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고하였다.

『OPEC과 非OPEC산유국은 유가폭락을 막기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밝혀듯이 非OPEC산유국이 혼란된 시장의 나쁜 영향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OPEC는 그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앙골라와 오만같은 국가는 지난 '86년 4월 4일에 OPEC 제77차 특별회의에서 발표된 성명과 같이 대화

에 참여하게 되었다.

『총회는 앙골라,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과 같은 非OPEC 산유국과 유익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여기서 양측은 OPEC의 公式價 28\$/B로 OPEC基準價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유가구조에 대한 공통된 목표에 합의하고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총회는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非OPEC산유국과 필요한 접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대표단장인 석유장관들도 5개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非OPEC목표는 28\$/B로의 유가회복이었다. 그러나 아라비안라이트의 경우 당시 11.7\$/B까지 하락한 이후 그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OPEC를 지지하는 그들의 방안은 매우 애매한 것이었다. OPEC내부의 의견차이가 非OPEC 산유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요구조건을 출현시키는데 방해가 되었다.

'86년 7월까지 유가는 10\$/B까지 하락하였으며, 지지 약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非OPEC 산유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 오만은 50만b/d에서 5만b/d생산을 감축할 것임.
- 노르웨이는 유전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계획된 증산을 축소시킬 것임.
- 말레이시아는 10%(3.5만b/d)의 수출감축을 OPEC의 생산조절조건으로 제의.
- 멕시코는 150만b/d 수출중 15만b/d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것도 OPEC의 생산조절과 연계.
- 蘇聯은 이미 50만b/d의 수출감축을 주장, 수출은 향후 5년간 증가할 것 같지 않음.
- 이집트는 산유량을 7만b/d 감축
- 앙골라는 산유량을 2만b/d 감축

OPEC는 非OPEC의 계속된 산유량 증가를 예상하고 이것이 OPEC의 초과생산과 함께 유가를 약화시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하였다. 1986년 7/8월의 78차 OPEC총회는 OPEC생산상한을 1600만b/d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OPEC의 산유량을 잠정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總會는 또한 非OPEC산유국에 대해 시장안정의 부담을 OPEC과 함께 진다는 의미로 상당물량의 감산을 요구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 OPEC

